

이름·얼굴없이 평생 무주상 보시

美 교포 허백 거사, 장학금 25년간 전달 5월 28일 타계... 전북불교대서 추모법회

6월 4일, 전주 전북불교대학(학장 강건기) 법당에서는 아주 특별한 법회가 봉행됐다. 이름도 얼굴도 없이 평생 장학사업을 펼친 어느 재미동포를 추모하는 자리였다.

그를 추모하고자 서울, 서산, 울산 등 전국에서 달려온 이들은 대부분 추모법회에 참석하고자 그의 이름이 해인(海印) 허백 거사였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

허백 거사는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자수성가한 평범한 교포였다. 허 거사는 1981년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는 강건기 교수(전북대 철학과)에게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비지원을 약속하며 추천을 부탁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간곡한 요청과 함께였다.

이날 추모법회에서 강건기 학장은 "불자였던 허백 거사는 종교를 초월해 참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찾았고, 한번 추천한 이는 공부 끝날 때까지 도와주었다"며 "그의 삶은 무주상 보시를 실천한 진정한 보살의 삶이었다"고 회고했다.

25년 동안 허백 거사의 도움을 받아 공부한 이들은 수시 명에 달하며 현재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은 물론 교육계, 공무원 등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법회에서 자신을 도와주었던 이가 허백 거사였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이다.

30여 년 전부터 하루 10원 아껴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는 유승룡 초원장학회 이사장은 추모사를 통해 "생면부지의 허백 거사가 1989년 인터뷰 기사만 보고 후원금을 보내오기 시작해 이제까지 매년 1만불씩 보내고 있다"며 "후원금의 일정액을 모아 공익법인 초원장학회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 이사장은 "회보에 붙자 인 허백 거사의 이니셜을 따 'H연꽃'으로 소개하다가 우연히 송금 수표가 그대로 인쇄되는 바람에 이름이 나간 적이 있어 호된 꾸지람을 받기도 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허백 거사는 지난 5월 28일 미국 뉴욕에서 향년 76세로 입적했다. 이날 초재를 겸한 추모법회에 참석한 허백 장학생과 불교대학 학인들은 발원문을 통해 "허백 거사의 보살행은 멋진 불공이었고, 그 뜻은 이어 생활 속에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전주=이준엽 기자



허백 거사의 생전 모습

“가정 학교 사회 함께 해결해요”

부산 청소년쉼터 가출예방 토론회

부산시청소년쉼터(실장 지장은 6월 2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회 가출예방토론회를 개최했다.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1부 개회식과 2부 주제발표 및 토론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는 불국토 대표이사 정관스님, 최익두 부산시 행정관리국장, 부산시청소년쉼터 실장 지장 스님 등 청소년 시설 관계자 등 3백여 명이 참석했다.

지장 스님은 인사말에서 “가출 청소년이

2003년에 비해 26.3%나 늘어났다는 통계청의 발표는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소식”이라며 “늘어만 가는 가출률은 부산시 청소년쉼터가 8년간의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청소년 가출 양상에 맞추어 쉼터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절박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2부 행사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회장과 대전 청소년쉼터 소장 등 4인이 연설했다.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청소년쉼터의 특성화와 다양화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김영란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소장은 가출 청소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웃리치 활동’ ‘지역 사회 자원과의 네트워크’ ‘위 기청소년 보호시설의 특성화와 체계화’ 등을 중점 추진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부산지방경찰청 김민자 여경기동 수사대장은 가출 청소년 보호정책과 선도 대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에 나서 청소년 가출에 대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가 공동으로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경찰의 청소년 선도 대책으로 스톱폴리스 운영 등을 내놓았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印·中·韓 역대조사 한자리에”



장수 죽림정사 용성교육관 내부에 조성된 한국과 인도, 중국의 역대 조사 진영들.

과거칠불에서 인도, 중국, 한국에까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법안장을 이어온 69 조사 진영이 한자리에 모셔졌다.

장수 죽림정사(조실)는 용성교육관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맥을 이어온 70여 분의 조사 진영을 조성하고 6월 14일 ‘용성 스님 탄신 142주년 기념법회’와 함께 집안한다. 석가여래 부처님 조사들의 진영이 한자

사 진영과 전법계가 쓰여있다.

동쪽 벽면에는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7여래도와 삼채전심도가 자리해 있고, 이어 1세 가섭 존자에서 중국 조조 보리달마, 해동 종조 태고 보우, 용성 스님에 이르는 진영이 빼곡하게 자리해 있다.

또한 교육관 내,외 포벽에는 전법조사 이외에 인도, 중국, 한국의 제대조사와 스님, 재가불자 104분이 조성되어 있다.

죽림정사, 용성 교육관에 69분 진영 조성... 6월 14일 집안

리에 조성된 것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불사로서 눈길을 끈다.

용성 스님의 유훈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도문 스님은 “불법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 연연이 이어온 조사 원류를 밝히고, 한국불교의 뿌리를 보여주기 위해 조사 진영을 한자리에 조성했다”고 밝혔다.

제대조사 진영은 108평 규모의 용성 교육관 내부 벽면에 전통 불화양식으로 조성되었으며, 80×130 cm 크기의 화폭에 조

이번 조사진영 불사는 ‘백운성 조사 유훈실현 후원회’ 박시민 고문·한명옥 회장 부부가 후원하고 이들의 아들이자 불화가인 박태석(동국대학교미술연구원) 원장이 2년간에 걸쳐 직접 조성해 일가족의 원력이 담겨있기도 하다.

박태석 원장은 “<조사원류> <불조진영집>은 물론 현존하는 조사 진영을 기본으로 삼았으며 자료가 없는 조사는 동시대 인물화를 참조했다”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원효사상 경주서 되살아난다

원효성사봉찬회, 기념관·성상 건립 추진

서라벌 천년 고도 경주에서 원효 스님의 가르침과 사상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과 성상을 건립하는 불사가 시작된다.

원효성사봉찬회(추진위원장 대의)는 6월 4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원효성사봉찬회 결성 발기인회를 갖고 경주를 원효 사상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이날 발기인회에서는 원효 스님의 가르침을 오늘날에 맞게 재조명하여 널리 선양함으로써 화합과 상생의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세계 최대규모(높이 33m)의 원효 성상 봉안과 3층 9백평 규모의 원효 스님 기념관 건립이라는 7년 불사 청사진을 발표했다.

불사는 경주 남산 기슭의 망월사 부지 6만여 평 중에서 전망과 주변경관이 좋은 최적지 1만평에 진행될 예정이며 원효 성사 봉찬 불사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기금 조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원효성사 봉찬회는 기금 조성을 위해 원효성사 저술집 발간, 심판팔천 해동보살전 조성, 회원제 운영, 성상 복장용 사경문 모집 등의 운동을 펼치게 된다.

이번 원효성사봉찬회에는 신라대 총장을 역임한 부산 원효정사 회주 법산 스님, (재)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무진 스님, 요양호 부산대 의대 교수, 심봉근 동아대 박물관장, 박은용 부산교수불자회 회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들은 원효 스님의 사상으로 인류보편의 가치를 창출해내고 널리 알려야 한다는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위한 운영시스템, 전문가 구성, 공영회 등을 통해 범종단 범종교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경주=천미희 기자

단신

홍법사, 홍법바라밀제 봉행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6월 6일 신창농장에서 호국 영령들을 위한 천도제인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제를 봉행했다.

매년 6월 6일 호국영령을 천도하기 위해 봉행해온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제는 부산 감로사 주지 혜종 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됐으며 사부대중 1천여 명이 동참해 호국 영령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법사 장건주인 하도명화 보살, 주지 심산 스님, 통도사 백련암 원산 스님, 설동근 부산시 교육감, 류진수 부산불교방송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법문에 나선 백련암 주지 원산 스님은 “본래의 마음 자리를 깨달으면 누구도 부처”라며 “생사가 본래 없는 근본 마음 자리를 깨닫는 공부에 더욱 매진해 호국 영령들의 은혜를 갚는 불자가 되어야 한다”고 법문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한 홍법대상 수상자로 왕산사 부산여성불자회 회장이 선정돼 상패와 상금 3백만원 등을 받았다.

천미희 기자

선각종, 불우이웃에 생필품



대한불교선각종 총무원(원장 정암)은 이달 초 관내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 10여 가구에 격려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사진).

이번 불우이웃돕기는 지난달 선각종 복지원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모금한 성금 120만원과 라면, 쌀 등 생필품으로 종단 관계자와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돌며 전달했다.

이날 총무원장 정암 스님은 “선각종은 나눔으로 하나되는 세상을 이루는데 앞장 서겠다”며 “전 종도와 함께 독거노인 연료비 지원, 불우청소년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준엽 기자

육천 대성사 복장유물 도난

전통사찰인 육천 대성사(주지 혜철)의 대웅전에 모셔져 있는 지장보살이 훼손되고 복장유물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은 “6월 4일 오전 법당을 정리하던 중 지장보살의 손가락이 절단돼 있는 등 불상이 심하게 훼손돼 있어 살펴보니 복장유물까지 도난당한 상황이었다”며 “경비시스템 전원을 끄고 불전 함까지 출제했다”고 전했다.

대성사는 현재 육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유철주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국의 에드가 케이스 박진여씨의 놀라운 최면 투시 능력

충격적인 카르마의 보고서 [전생을 읽는 여자]

이 책속에 당신이 전생에 지어 놓은 업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갑자기 들이닥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불치병, 자식의 죽음, 자살, 사업의 실패, 좌절... 이 모든 불행이 왜 하필 나에게 일어났는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삶의 비밀이 풀린다.

동방피동명성연구소 02)2198-5789 / 051) 817-6156



전생을 읽는 여자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전생을 읽어내는 능력을 지닌 박진여씨가 자기최면투시의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여 그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는 부분을 리딩해 주었던 사례별 이야기 모음집이다. 이 책에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좌절과 절망과 불행의 고통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으며 왜 나에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그 원인과 해결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운회, 카르마로 대표되는 영혼의 세계를 무속신앙이 아닌 정신과학적이고 종교 철학적 관점에서 소개하여 우리 스스로가 모르고 있던 삶의 심오한 의미와 가치를 절로 깨우치게 한다.

고양이집 8,000원 *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우리가족의건강 지킴이
NK N-K NATURAL
묘향산 전록탕

본 제품은 전 북한 만수무강연구소 약국장이 직접 제조한 신비의 건강식품
보정, 보기 보혈에 뛰어난 효과가 있어 김일성이 생전에 빠뜨리지 않고 먹었던 35가지 약성분을 배합한 것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잘 맞도록 만들어진 식품이다. 만성피로에 시달리거나 원기가 부족한 사람, 수술후나 방사선 치료와 항암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물론,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 전록탕의 효능 ※
<보혈, 보기, 보정, 작용이 탁월하다>
적혈구, 백혈구의 생성 활발행렬작용을 한다.
중년 남,녀들의 기력강화, 경년기 장애를 해소시키고 젊음을 찾아준다.
기를 보하며 면역력을 높여준다

이미 언론에서 주목을 받고있는 묘향산 전록탕 그 효능이 탁월합니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말하는 묘향산 전록탕은 묘향산 일대에서 자생하는 "가시오가피"를 북한에서 직수입하여 "동충하초"를 비롯한 우수한 한약재를 "약물동역학적"으로 제조한 안전한 건강식품입니다.

최고는?
건강!
동의학 박사
허창걸

묘향산 전록탕이란...
본 제품은 북한 만수무강연구소에서 최고위급 인물들을 위하여 개발된 제품 그대로입니다. 김일성 만수무강 연구소 묘향산 요양소 약국장이었던 허창걸 동의학 박사가 우수한 한약재를 "약물동역학적"으로 제조한 안전한 건강식품입니다.

판매원: 룩원 02) 771-2985 • 제조원: NK내추럴 • 총판대리점모집 02) 755-9821